

5·18 학살 진압군 ‘호국영웅’ 둔갑 광주시민 상대로 전쟁 벌였다는 軍



지난 23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전사자명비를 살펴보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전사자명비에 5·18 때 사망한 계엄군 이름을 새겨 넣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 진압군 추모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에 자리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5·18진중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돼 사망한 계엄군 22명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월단체 관계자들은 국가가 광주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전국의 현충시설을 전수조사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7면〉
지난 23일 방문한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입구 인근 회랑에 설치된 103번 '전사자명비'에서는 40번째 줄 첫번째 칸부터 41번째 줄 7번째 칸까지 새겨진 5·18 때 사망한 계엄군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이름을 올린 계엄군은 5·18 당시 송암동에서 육군 보병학교 교도대와의 오인사격으로 숨진 11공수여단 부대원 8명을 포함한 모두 22명이다.

5·18 계엄군 이름이 새겨진 명비는 6·25전쟁 정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부터 현재까지 간접 작전 때 사망한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이름을 담고 있다.

전쟁기념관에는 가로 1.5m×세로 2.5

도청앞 집단발포 후 군인끼리 오인사격 사망자 포함 22명
국방부·전쟁기념사업회, '전사자 명비' 책임 떠넘기기
전국 현충시설 전수조사해 바로잡고 후대에 교훈 남겨야

m 크기 검은색 화강암으로 된 전사자명비가 총 129번까지 있으며 창군기와 6·25전쟁(1~100번, 109~128번), 대첩투전(101~104번, 129번), 월남전(105~108번)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쟁기념관 측은 전사자명비에 대해 '창군기, 6·25전쟁, 베트남전쟁, 대첩투전 등에서 전사한 국군과 경찰관,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사자 현황은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지난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의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 수준(2013년 기준)으로 청소년이 40%, 외국인이 10%에 달한다. 연간 예산은 170억원 수준으로 이중 100억원 이상

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5·18계엄군이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기념사업회와 국방부는 전사자명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전사자명비는 1994년 개관전시 때 설치된 것으로, 명부는 국방부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5·18계엄군 사망자가 이름을 올린 경우는 파악하기 힘들다"며 "전사자명부는 국방부가 관할할 사안이기 때문에 전쟁기념관 자의로 수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전쟁기념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기념관 103번 전사자명비에 이름이 새겨진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

지역 5·18연구자는 "관련 법에 의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전쟁기념관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계엄군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니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간다"며 "지난 수십년 간 아무 것도 모르는 방문객들이 계엄군 사망자를 순국 선열로 잘못 알고 추모했다는 사실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사자명비에 새겨진 계엄군 이름을 삭제하고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현재대의 잘못된 역사관을 후대에 교훈으로 알려야 한다"며 "전쟁기념관 뿐 아니라 전국 현충시설을 전수조사해 5·18과 관련한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관광 전담기구 설립 '속도'

광주관광공사 적극 검토
전남 관광재단 용역 진행 중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가칭)광주관광공사를, 전남도는 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열린 케이팝(K-POP) 슈퍼콘서트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도 'K팝 스타'를 활용한 한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 전담기구 설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 회의에서 "(가칭) 광주관광공사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 케이팝(K-POP) 슈퍼콘서트에 65개국에서 1만여 명의 외국인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수영대회를 알리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대부분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측면에서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광주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로운 관광진흥 전담기구의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 범위, 조직과 인력 수요, 적정 자본금(출연금) 규모 등을 분석하게 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6월께면 관광전담기구 설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광주관광공사 설립이나 현재 광주관광컨벤션뷰로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이었던 (가칭)전남관광공사 대신 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자체 수익 사업이 있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기구인 재단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전남도는 출연기관 형태로 관광재단을 설립해 오는 2020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철 동신대 교수는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도시와 경관 관광 등으로 성격이 다른 만큼 시도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지역 관광의 종합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 ... 입법화까지 험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회의장 앞을 막아서며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를 막지 못했다.

〈관련기사 3, 4면〉
선거제·개혁입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됨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국회 정거까지 강행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극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원 안전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NOTHING BUT BLACK !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블랙 그 하나만으로 무결점 피부

MATT SMOOTHLY 부드러운 매트 피니쉬
24 HOURS FREELY 24시간 밀착되는 롱래스팅
COLOR STAY 다크닝 없이 깨끗한 커버

HERA